

止攝 諸韻의 中古音 再構*

- 한일중 및 베트남·티베트 자료를 중심으로 -

김대성**

(e-mail: hanbyeol@chonnam.ac.kr)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
|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 3.3 현대 중국 방언음 |
| 2.1 연구방법 | 4. 제1차 자료에 투영된 微韻 |
| 2.2 선행연구 | 4.1 한국 전승 한자음 |
| 3. 제2차 자료에 투영된 微韻 | 4.2 萬葉假名の 微韻 |
| 3.1 베트남 한자음 | 5. 微韻의 중고 재구음 |
| 3.2 티베트 한자음 | |
-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中古 再構音(reconstruction of sound values in Ancient Chinese)을 추정하는 일환으로써 먼저 止攝 諸韻, 특히 微韻音부터 재구 혹은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그 결과를 통해 止攝 치음 4등자가 한국 전승 한자음에서 /ㄹ/로 반영된 것이 중고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한일 연구자의 고대 언어에 대한 연구를 재검토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止攝音부터 재구하는 이유는 다른 韻보다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재구 혹은 논증을 한 뒤에 해당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고 한음의 韻母音에 대하여 キム·데ソン(2000)에서 모두 밝힌 바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7-A00567).”

* 전남대학교 부교수 고대일본어

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연구는 전체적인 체계를 염두에 두고 커다란 밑그림을 그린다는 전제 하에 한자 하나하나에 대하여 세세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한자 한 자 한 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적어도 매수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キム・デソン(2000)의 10배 이상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큰 틀에서 그 연구 결과 자체에는 커다란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세한 변화의 차이라든가 각 글자의 용법의 변화라든가 하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해결 상태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해서 한중일 자료나 연구서와 논문 등을 검토해 볼 때마다, 필자의 재구음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거나 또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 했던 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당성에 대한 근거의 부족을 절감하곤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중고음 재구를 위한 세세한 연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2.1 연구방법

중고음을 재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처음으로 재구한 학자는 Bernhard Karlgren(버나드 칼그렌:1889~1978)이다. Karlgren(1963)은 운도(韻圖 Rhyme Tables)와 한국·일본·베트남의 한자 차용자(the Ancient Chinese loan words in Japanese, Korean and Annamese), 그리고 현대 중국 방언(Modern Chinese dialects)을 적절히 비교하면서 음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성운학자들은 대부분 Karlgren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면서 Karlgren의 추정음을 비판하거나 수정하면서 자신의 재구음을 수립하였다. 사실 그대로 따랐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운도와 운서(韻書 Rhyme Books) 그리고 현대 중국 방언음이 주된 자료이며, 학자에 따라 일부 일본의 한음(漢音 Kan-on)이나 오음(吳音 Go-on) 또는 萬葉假名(만요우가나:일본어의 우리말 표기법은 필자의 표기법에 의한다), 일부의 한국 한자음(Sino-Korean)·베트남 한자음(Sino-Annamese) 혹은 티베트 한자음(Sino-Tebetan)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Karlgren의 경우 그 당시로서는 부득이하였겠지만 일본의 한음이나 오음에 대하여 특히 萬葉假名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었으며, 또한 한국 한자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또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¹⁾ 따라

1) 萬葉假名에 甲類와 乙類의 구분이 있었다는 연구는 橋本進吉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가 대중에 처음 강의한 것은 1937년이고 출판 형식으로는 1941년, 그리고 출판은 1942년에 이루어졌다. 김대성(2003b) 참고. 한국 한자음에 대해서는 최영애(1985) 참고.

서 그의 재구음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재구음의 연구방법을 중국학자들은 상당 부분 그대로 원용(援用)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한국이나 일본 자료에 대하여 현대 중국 방언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데 그 연구방법의 한계가 있었다.

일본학자의 경우 河野六郎(코우노 로쿠로우 1993)는 일본 오음, 한국 한자음과 베트남 한자음, 중국 남방 방언음 그리고 역경(譯經)인 『孔雀明王呪經』을 중심으로 Karlgren의 재구음을 토대로 재구하였으며, 藤堂明保(토우도우 아키야스 1980)는 주로 蘇州(수저우; 중국어의 우리말 표기법은 C.K.System<김용옥 1992:349-361>에 의한다) 방언과 한음·오음 그리고 일부 萬葉假名와 중국 방언음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일본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작 중요한 제1차 자료라고 생각되는 萬葉假名와 한국 전승 한자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자료로 판단되는 일본의 고대 문헌에 보이는 萬葉假名와 한국 중세 전승 한자음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제2차 자료로 판단되는 현대 중국 방언음, 티베트 한자음과 베트남 한자음 자료를 참고로 하는 방법으로 재구해 나가기로 한다. 그 결과 적어도 한중일 세 나라의 제1차 자료가 통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게 설명이 가능한 재구음의 도출을 꾀하고자 한다.

베트남 한자음과 티베트 한자음 자료를 제2차 자료로 보는 이유는 필자의 수준에서는 현대 베트남과 티베트 한자음, 즉 현대 베트남어와 티베트어의 음운체계 내의 한자음만을 알고 있을 뿐, 고대 베트남어나 고대 티베트어의 음운체계 내의 한자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자 역시 필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제1차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필자는 제2차 자료라고 부르기로 한다.

2.2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의 중고음(Ancient Chinese)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추정은, 즉 재구는 지금까지 Bernhard Karlgren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학자로는 董同龢(똥통후아), 李榮(리 르옹), 王力(왕 리), 陸志韋(루 즈웨이), 周法高(저우 화까오), 严学窘(옌 쉬에쥘) 등이 있으며, 일본학자로는 藤堂明保, 河野六郎, 平山久雄(히라야마 히사오) 등이 있다. 그런데 중고음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²⁾ 단지 중국이나 일본 또는 Karlgren 등의 재구음을 가져다가

2) 중고음의 재구는 바로 상고음과 근대음 재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자들이 먼저 해

설명의 편의 과정에서 여러 학자 중 특정 재구음을 취하여 그 재구음에 대한 검토나 비판이 거의 없이 적용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止攝 중고음의 재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³⁾ Karlgren(1963:263-266)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재구하였다.

124 and 125 are treated exactly alike in all the foreign loans and all the modern dialects: Both 124 肌 and 125 己 Kor. *kbŋi*, Kan-on, Go-on, Ann. Hak. Swat. Foo. *ki*, Cant. *kei*, Wenchou, Shanghai and Mandarin *tsi*; Both 124 夷 and 125 怡 Ann. *zi*, all the rest *i*. (p.263)

But among the Min dialects of Fukien (exceedingly conservative on many points) we find a clue to the Anc. value of Final 126. Foochow has not *-i*, as in Finals 124 and 125, but *-ie* in a majority of the words with this Anc. final: (pp.264-265)

Whereas Go-on regularly has *-i* for the other Anc. finals (124,125,126), it has just as regularly *-e* for present Final 127: 127 a *ke*, 127 b *ke*, 127 c *e*, etc. Wenchou (a Wu dialect in the region from which the Go-on originated) also has some cases of *-e*: 幾 機 譏 *ke*. (p.265)

脂韻과 之韻은 외국 차용 한자음과 현대 중국 방언음에 의해 같은 음으로, 支韻은 福建(Fukien) 지방의 閩방언(Min dialects)에 속하는 福州(Foochow)방언을 근거로, 微韻은 오음에서 ㄱ段으로 반영된 것을 근거로 [(j)ɛi] [(j)wɛi]와 같이 재구하였다.

陸志韋(1985:44-48)는

我們不能從現代方言推擬那四個中古主元音。隋唐的外國譯音也不能給我們多少指示。所以我們不能不借重上古音。(p.44)

와 같이 상고음과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廣韻』의 상고음과의 相配關係, 六書의 운서 등을 근거로, 특히 脂韻은 현대 방언음에 의해 3중모음(三折音)으로 추정하였다. 그의 추정음은 [ɪɛi][ɪwɛi]와 같다. 王力

야 할 연구는 중국 중고음의 재구이며 그것을 토대로 시대의 상하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본고는 微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연구 또한 微운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止攝字의 일련의 연구 중 첫 연구이므로 편의상 止攝 전체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지면관계상 재구음은 微운 위주로 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다음 연구부터는 선행연구를 생략하거나 부득이 필요한 최소한의 언급으로 그치도록 하겠다.

(1985:226-227)는 微韻은 文物韻과의 관계에서 [əi, juəi, juət]와 같이, 그리고

《四声等子》在止攝虽只标为脂旨至质，但是图内兼收支纸真、之止志、昔锡等韵的字。

와 같이 『四声等子』에 의해 脂支之韻을 [i, ui, it, uit]와 같이 같은 음으로 재구하였다. 董同龢(1993:166-168)는 之韻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支韻字福州有些讀作-ie，厦門也有些讀-ia，都與脂之微的字只讀i有別，…此外微韻開口牙喉音字在閩南語有些讀作合口音——如“幾”kui——顯示着這是由複元音變來的，日本譯音的吳音又有些字韻母作-e，由這兩點，再加上微韻屬於甲類三等韻一點。…脂韻的韻母有1類與2類之分，2類韻母屬乙類三等韻，音近於甲類，… (p.167)

와 같이 支韻은 福州(후우저우)와 厦門(시아먼) 방언에 의해 微韻은 閩南(민난) 방언과 오음 그리고 甲類(즉 순3등운)임을 근거로, 脂韻은 2류 乙類 3등운이며 乙類의 음은 甲類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각각 [-jəi][-juəi]와 같이 재구하였다. 严学寤(1990:73-74)은

止攝这许多韵母，到现代汉语方言读音差不多都混了，显示着原来主要元音有个共同的 i。不过支韵字福州有些读作-ie，厦门也有些读-ia，与脂之微字只读 i 有別。(pp.73-74)

와 같이 현대 방언음에 이르기까지 혼용되었다는 점과 支韻은 董同龢와 같은 근거로 각각 [jəi][juəi]와 같이 추정하였다.

한편 藤堂明保(1980:264-265)는

「微」韻の字は、吳音では、気ケ、衣エ、依エ、希ケのように、多くはエ段に読まれ、万葉ガナではエ乙類に入る。また「之」韻の字は、己コ、其ゴのようにオ段に読まれるものがあり、万葉ガナでは、己コ乙・止ト乙・疑ゴ乙・里ロ乙・己ヨ乙のように、多くはオ段乙類に入る。…「脂」韻3等字は漢音ではもちろん、吳音においてもイ段に読まれる。しかし万葉ガナでは、「脂」韻3等系の悲ヒ・備ビなどはイ乙類に、4等系の比ヒ・鼻ビ・寐ミなどはイ甲類に入る。(p.264)…最後に「支」韻の字は、万葉ガナではイ段に入り、奇3キ乙・彼3ヒ乙・祇4ギ甲・卑4ヒ甲となるから、「脂」韻や「之」韻に酷似している。ただし推古朝には、奇ガ・宜ガ・移ヤのように、ア段に読まれたから、元來は第3類ではなく第1類である(p.162参照)。第1類の「歌1」/a/・「麻2」/ε/・「麻34」/r-je/に並ぶとする

と、/j/韻尾をもたずゼロ韻尾であるから「支3」/rje/・「支4」/je/と推定されよう。(p.265)

와 같이 주로 오음과 萬葉假名에 의해 재구하였고, 河野六郎(1993:103-111, 122-124, 145)는 支韻[-ɨe][-ɨ^we][-ɨe][-ɨ^we]과 脂韻[-ɨi][-ɨ^wi][-ɨi][-ɨ^wi](脂韻과 之韻은 이미 합류한 것으로 보아 脂韻만을 제시하였다)은 Karlgren이 재구한 핵모음을 인정하고 『孔雀明王呪經』의 예로 증명하였는데, 다만 개음에 대해서는

是等の對應より甲乙二類の音韻的相異が略見當が附く様であるが、有坂氏(『方言』第六卷第五號、昭和十一年五月、「漢字の朝鮮音に就いて」下 p.44)がこの乙類に中舌的拗音(i=ɨ)を想定されたのは正に卓見である。今此の説に従つて甲乙の音價を定めると次の如くなる。(p.106)

와 같이 有坂秀世의 설을 따랐다. 微韻[-ɨuəi][-ɨəi]은 微:文;廢:元韻의 대응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止攝字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재구음의 근거를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Karlgren의 경우 微韻 재구시 오음이 -e로 반영된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萬葉假名에서 보듯이 비록 오음에서 -e로 반영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의 반영음으로 오음 계통의 萬葉假名에서는 음류이므로 음이 전혀 다르다. 또한 4등 개음을 ㅅ·아·후음 聲母가 구개화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였으므로 [i]가 아니라 중설의 [ɨ]가 되므로 이 개음에 의하면 차용 한자음 설명이 어렵다. 陸志韋는 철저하게 외국 차용음을 배제한 것이 문제이며, 王力의 경우는 차용음 배제뿐만 아니라 가장 근거가 약하다. 董同龢와 嚴學窘도 방언음과 일부 오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의 재구음은 오히려 Karlgren의 재구 방법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연구 방법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藤堂明保는 주로 萬葉假名에만 의존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河野六郎는 비교적 근거 제시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Karlgren의 재구음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일 자료의 해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止攝에 대한 논의는 山口角鷹(1958)의 일본 한자음에 보이는 止攝字의 양상, 岡本勲의(1969)의 일본 한자음의 장음표기와 佐々木勇(2004)의 한음에 나타난 止攝합구음의 수용 등이 있으며, 微韻字에 대해서는 秋谷裕幸(1993)의 客家語(Hakka) 순음자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편 止攝字와 관련이 있는 고대일본어의 연구로는 갑류와 을류에 대한 真武直(1960)·加倉井正(1981)의 연구, ㅅ을류에 대한 森山隆(1959)·佐藤清(1987)·김대성(2003a)의 연구, ㅈ을류에 대하여서는 福永靜哉(1956)·東ヶ崎祐一(1993)·金大星(2003)의 연구, 그리고 ㅊ갑을류에 대한 논의로는 柴田武(1980)·浦上準之助(1993)·藤井游惟(2001)·김대성(2003c)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東ヶ崎祐一은 몇몇 齊韻字가 ㅈ을류로 사용된 이유에 대하여 본래 ㅈ을류이었는데 한자음 자체가 변화하여 ㅊ갑류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았으며, 藤井游惟는 ㅊ갑을류의 구분표기는 고대 일본어에서 조건이음으로 존재하는 ㅊ갑을류음을 한반도 귀화인의 모음 체계에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인의 표기에 의하여 구분되어 표기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止攝 치음자가 /으/로 반영된 문제에 대해서는 박병채(1986)는 상고음의 반영으로, 이돈주(1990)와 김무림(2006)은 근대음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3. 제2차 자료에 투영된 微韻

본 장에서는 제2차 자료인 베트남 한자음과 티베트 한자음, 중국 현대 방언음에 나타난 微운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1 베트남 한자음

첫째, 베트남 한자음(三根谷徹 1993:455-456)의 예는 다음과 같다.

非phi 微vi 幾ki 希hi,hy 衣y
 歸qui 暉huy 葦uy

개구음은 i[i]와 y[i]⁴⁾로 반영된 것이 총 93자 중에서 78자에 달해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5자는 핵모음인 [ə]가 cə[kə](幾~~機~~ 8자)·khəi[xəi](豈 1자)·phət[fət](狒 1자)⁵⁾, [e]가 kê[ke]와 phé[fe], [a]가 khái[xai]와 khái[xai]⁶⁾이고 [u]가 mùi[mui]로 나타난다. 특히 핵모음이 [ə]인 경우는 중고음 이전의 어느 시기의 반영음일 가능성이 높다. 狒의 phət 반영음은 物部 3등 합구(物韻)에 속하는 弗의 유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정음의 반영시기는 王力

4) 이중모음인 경우 음의 길이가 i는 짧고 y는 길다.

5) ə[a] ə[ə]에는 모음의 길이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장모음인데 반해 후자는 단모음이다.

6) 모음이 [ai]로 같지만 전자는 제3성이고 후자는 제5성으로 성조가 다르다.

(1985:511)의 재구음에 의하면 宋 이전 즉 先秦에서 隋唐 사이의 어떤 시기의 음으로 추정된다. 성조는 일반적으로 평성이 제1성(thanh ngang)과 제2성(thanh huyền)으로, 상성이 제3성(thanh hỏi)과 제4성(thanh ngã)으로, 그리고 거성이 제5성(thanh sắc)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합구음은 ui[ui]와 uy[ui]가 46자 중 27자로 약 59%를 차지하여 개구음의 i와 y가 84%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베트남 음운체계와 관련이 있다. 후음 차칭 于母자가 16자로 약 35%를 차지하여 vi[vi]로 반영되었는데 三根谷徹는 于母를 [ɣ]로 추정하였고, 藤堂明保는 [ɥ]로 추정하였다. 현대 베트남어의 음운체계에 의하면 [ɣ]는 g로 표기가 되므로 于母는 vi[vi]가 아니라 gui[ɣui]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의 추정음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ɥ]는 순음성이 있기 때문에 순음성이 있는 순치음인 자음 v[v]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베트남 음운체계 내에서 차선책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치음 v는 고유의 순음성으로 합구개음인 [u]를 흡수하여 vui[vui]가 아니라 vi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구개음을 흡수한 v도 합구개음의 반영으로 본다면, 46자 중 43자로 약 94%가 ui와 uy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밖의 3자는 각각 oai[ɔai]·vâng[vəŋ]·vũng[vũŋ]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 한자음은 微운 개구음과 합구음이 각각 [i]와 [ui]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3.2 티베트 한자음

다음으로 티베트 한자음(羅常培 1933:43-44)을 보기로 하자.

微開三 : [ěi]

<平> 機ki <去> 旣gi (千字文)

<上> 幾gi 依'i <去> 旣gi (大乘中宗見解)

微合口 : [wěi]

<平> 肥bi 微'byi 飛p'é 威'u'i <上> 煒'we <去> 畏'u'i (千字文)

<平> 非p'yi 歸ku 違'u, wu <去> 味byi 畏'u 謂'u (大乘中宗見解)

<平> 非p'yi, 'p'yi (阿弥陀經)

<平> 非p'yi 圍'u (金剛經)

개구음은 4예에 불과하지만 모두 i[i]로 반영되었다. [i]의 음에 j 표기가 사용된 것은 원본의 문자 표기를 존중한 것일 뿐 음운론적으로나 음성학적으로

는 같은 음이다.⁷⁾

합구음은 주로 순음은 yi[ji]로, 아음과 후음은 u[u]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베트남 한자음에서는 볼 수 없는 중고음의 핵모음과 어느 의미에서는 중고음의 개음에 대하여 고려해 볼 만한 흔적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티베트 한자음의 네 가지 자료의 성립 연대에 대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千字文 자료 이외의 나머지 두 자료는 아음과 후음이 규칙적으로 u로 반영되었으나, 千字文의 경우 아음자는 없지만 후음자가 威畏'u'i[ui]로 나타나 있다. 이 점은 千字文 자료가 나머지 세 자료 보다 더 오래된 음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개구음에서는 개음이 흡수되어 [i]로 나타났지만, 합구음에서는 순음이 肥bi[m̥bi]와 飛p'e[phɛ]와 같이 단모음으로 나타난 예도 보이지만, 네 가지 자료에 공통적으로 이중모음인 yi[ji]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i는 운미음의 전사이므로 y는 합구음과 3등개음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티베트 한자음의 止攝자를 보면, 개구음의 경우 支운 3·4등과 脂운 3·4등, 그리고 之운 3·4등이 모두 i[i]로 반영되고, 합구음의 경우 支운 3·4등과 脂운 3·4등이 u[u]로 나타난 사실⁸⁾과 달리, 유독 微운 합구음의 순음만이 u가 아니라 y로 반영된 것을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微운과 微운 이외의 운의 핵모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개구음에서 개음이 순음에 흡수되든지 운미음에 흡수되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개음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실에 비해, 합구음에서는 微운 이외의 운과 微운의 아음과 후음은 강력한 합구개음에 의해 개구개음이나 핵모음 그리고 운미음 마저도 탈락하였으나, 微운의 순음만은 y 즉 [j]로 반영된 것을 보면 베트남 한자음과 달리 3등개음 반영의 흔적의 가능성이 있다.

3.3 현대 중국 방언음

현대 중국 방언음(現代漢語方音)을 살펴보자. 중국 방언음은 『漢語方音字匯』(1989:3)에 의하면 官話·吳語·湘語·贛語·客家語·粵語·閩語⁹⁾와 같이 크게 7

7) 千字文의 i 音雖然有 ˆ ˆ 兩種記號(其餘三種陶慕士<私注: T.W.Thomas>未加分別)可是在音韻上 並沒有一定的條理, 現在分爲作 i, i 兩種不過聊存原本的面貌罷了。(羅常培 1933:11-12)

8)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支운개구: 碑pi 離li 馳ji 兒ḡ 綺kḡ 紫tsi 義gi 支ci 知ci 施ḡ; 脂운개구: 祇ci 伊yi 比ḡ 寐pi 二ḡ 次tsḡ 自dzi 資tsi 視ḡ利li 致ci; 之운개구: 持ji 茲tsḡ 其gi 貽yi 士ḡ 耳ḡ 起kḡ 治li 嗣ḡ 喜hi 思si 其gi; 支운합구: 吹c'u 爲'u 髓su; 脂운합구: 誰ḡwi 惟yu 水ḡu 軌gu

9) 官話: 北京, 濟南, 西安, 太原, 武漢, 成都, 合肥, 揚州

吳語: 蘇州, 溫州

湘語: 長沙, 雙峰

개의 방언 구획으로 나뉘어 지는데 微운 개구음의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見母)几(几乎)机讥几(几个)既: tɕi 官吴湘赣; tɕɿ 官<合>吴<温>; ki 客闽; kei 粤 단 既是 kei 闽<福>

(群母)祈: tɕi 官湘<长>赣; tɕieʔ 官<太>; dzi 吴湘<双>; tɕɿ 官<合>; ki 客闽 <潮>; ki 闽; k'eɪ 粤

위와 같은 반영은 溪母의 𪗇气汽, 曉母의 希稀, 影母의 衣依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중국 방언음의 개구음의 경우 粵의 [ei]¹¹⁾와 官<合>吴<温>의 설첨모음(舌尖元音)인 [ɿ]¹²⁾,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官<太>:祈 tɕieʔ / 闽<福>:既 kei 气汽k'eɪ / 闽<潮>:k'a'를 제외하면 모두 [i]로 반영되었다. 官<合>와 吴<温>의 [ɿ]는 구개음화를 거쳐 설첨음화가 진행된 결과로 추정된다. 粵의 [ei]는

④韵母中主要元音发音有长短的差别: a、ɛ、æ、ɔ、i、u、y 一般总是长的, e、e、ø、o、ɪ、ü 一般总是短的。

⑥韵母中韵尾与主要元音的长短相应, 有强弱的细微差别。长元音音节的韵尾略弱, 短元音音节的韵尾略强。(『汉语方音字汇』 p.30)

와 같이 핵모음이 단모음(短元音 short vowel)인 [e]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운미음(强韻尾 strong ending) [i]로 구성되었으므로 아마도 중고음 이전의 어느 시기의 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¹³⁾

합구음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개구음의 경우 원래부터 순음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합구음은 순·아·후음이 모두 나타나는데, 『汉语方音字汇』에는 모두 29자가 실려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赣语: 南昌

客家语: 梅县

粤语: 广州, 阳江

闽语: 厦门, 潮州, 福州, 建瓯

10) 같은 자에 문어음(文读音)과 백화음(白读音)이 있는 경우 백화음은 제외하기로 하며 성조도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의 방언구획명과 지방명은 약자로 첫 자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제시된 방언구획 뒤에 ‘< >’ 표시가 없는 것은 같은 방언구획 뒤에 ‘< >’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방언음을 나타낸다.

11) 影母의 衣依는 [i]

12) 影母의 衣依는 [ɿ]

13) [ei]는 필자의 표기방식에 의하면 [ɿ]로 나타낼 수 있다.

순음 : 非母-飞非匪; 敷母-妃费; 奉母-肥; 微母-微尾未味
 아음 : 見母-归鬼贵; 疑母-魏
 후음 : 影母-威畏慰; 曉母-挥辉徽讳; 于母¹⁴⁾-汇违伟苇纬胃谓猬

微운 합구 방언음의 예를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 관계상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순·아·후음 각각 한 자씩만 제시하기로 하면,

费 : 官吴<温>湘<长>[fei] 官<西>吴<苏>客[fi] 官<合>[fe] 官<扬>赣[fəi] 湘<双>[xui] 闽<厦><潮>[hui] 粤[fei] 闽<福>[xie] 闽<建>[xi]
 归 : 官湘<长>闽<福>[kuei] 官<合>[kue] 官<扬>[kuəi] 吴<苏>[kuɛ] 湘<双>赣客[kui] 粤[kuei] 吴<温>[tɕy] 闽<建>[ky]
 伟 : 官湘<长>闽<福>[uei] 官<合>[ue] 官<扬>[uəi] 吴<苏>[fuɛ] 湘<双>赣闽<厦><潮>[ui] 客[vi] 粤[wɛi] 吴<温>[vu] 闽<建>[y]

와 같다. 이상 29자의 예를 출현 빈도에 의해 검토해 보면 [uei]>[ui]/[i]>[uəi]/[uɛi]>[ue]/[uɛ] 등과 같이 나타난다.¹⁵⁾ 자세히 특징을 살펴보면, 순음의 경우 첫째, 합구개음 [u]가 순음의 순음성에 의해 흡수된 점이다. 이 점은 대체적으로 한자를 차용한 주변국의 반영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i]로 나타나는 경우 원래 후음인 자가 客에서는

客 : 挥辉徽讳汇[fi] 威违伟苇纬畏慰胃谓猬[vi]

와 같이 순치음으로 반영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또한 합구개음이 흡수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湘<长>에서도 挥辉徽讳汇[fei]와 같이 보인다.

둘째, 순음 차탁자의 경우, 粤는 성모 [m]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ɛi]로 나타나던 것이 微尾未味[mei]와 같이 [ei]로 반영되었다. 특히 闽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闽<厦>微尾未味[bi]; 闽<潮>尾未[bue]味[bi]; 闽<福>微[mi]尾[muei]; 闽<建>微未味[mi]尾[myɛ]와 같이 하나는 비비음화(非鼻音化 denasalization)이고, 또 하나는 합구개음의 반영이다.

셋째, 개구음의 [i]의 반영에 대하여 당연히 합구음인 경우에는 [ui]의 반영이 예상되어야 하지만, 湘<双>赣闽<厦><潮>가 주로 [ui]로 그리고 客에 일부 [ui]의 예가 보일 뿐 [uei][uəi][uɛi]등과 같이 핵모음[e/ə/ɛ]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핵모음[e/ə/ɛ]의 반영은 중고음 이전 어느 시기의 핵모음의 잔존으로

14) 위 책에서는 云母로 제시되었다.

15) 그밖에 [y, ie, o, ũ, u, yɛ] 등의 예도 소수 보인다.

보인다. 대부분의 官의 [uei]나 그 밖의 [uəi]와 [uei]는 중고음에서 [ui](개구음을 제외하기로 하면)이었던 것이 중고음 이전 어느 시기의 음으로 유사하게 되돌아 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uei/uəi/uei]처럼 핵모음 [e/ə/ɛ]가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강한 합구개음 [u]와 운미음 [i] 사이에서 약한 핵모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官<北>의 [e]는

⑤韵母 iou、uei、uən 在阴平阳平调时主要元音弱化为过度音。(p.8)

와 같이 핵모음이 약화되며, 曷의 [ɛ]는 앞의 인용에서 제시된 것처럼 짧은 모음이고, 官<扬>의 [ə]는 단독 모음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əi 杯眉飞; uəi 堆吹灰; ən 本吞针更; uən 昏存问; əʔ 不德汁日; uəʔ 骨出活; yəʔ 橘薛月域 (p.17)

와 같이 개음이나 운미음, 또는 개음과 운미음과 함께 나타나므로 기본적으로 그 음이 짧은 수밖에 없다.

4. 제1차 자료에 투영된 微韻

4.1 한국 전승 한자음

한국 전승 한자음(『훈몽자회(1527년)』·『천자문(1575년)』·『신증유합(1576년)』)의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한자음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微韻 개구음>

[見]璣譏機機既幾기 [溪]氣(기)끼 [羣]幾祈畿蟻기 [影]衣辰의 [曉]豨希희

<微韻 합구음>

[見]鬼貴귀 [影]威威위 [曉]暉輝(휘)휘/魁卉휘 [喻]韋幃緯闈葦胃蟬위/彙회 [非]非扉飛篋榘沸비/緋비/痲블 [敷]妃비 [奉]肥腓翡비 [微]尾味미

필자는 중고음 시기의 한국어의 모음체계를 전설모음 /이/, 중설모음 /우, 으, 어/, 후설모음 /오, 으, 아/로 추정하고 있는데¹⁶⁾,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세국어

16) /이/=[i], /우/=[ɰ], /으/=[ɰ̃], /어/=[ɛ], /오/=[u], /으/=[ɰ], /아/=[a]

와의 관계 속에서의 추정이며, 고대 삼국인 백제, 고구려, 신라의 모음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토대로 분석하면, 微韻의 한국 한자음의 개구음은 /의/로, 합구음은 순음 /이/, 아음·후음 /위/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개구음의 규칙적인 /의/의 반영과는 달리, 합구음에는 규칙적인 /위/의 반영 이외에 脛弁/훤/나 緋/비/의 반영도 보인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박병채(1986:182-193)는 止攝을 논하면서 개구음의 치두음과 치상음이 /으/로 반영된 점에 대하여 일본학자들의 근대음설과는 달리 “周代의 詩賦에서 台部의 咍운과 之운이 압운된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頭音의 영향으로 상술한 고층의 體韻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간직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는 합구음의 緋/비/는 皆운 非의 유추음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훤/의 반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최미현(2006)과 김무림(2006)의 근대음설과, 河野六郎의 중고음설 등이 있는데 필자는 /훤/나 /비/의 반영을 중고음 이전 시기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면관계상 이에 대하여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4.2 萬葉假名の 微韻

먼저 일본 고대 자료 중에서 微韻字의 가장 오래된 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微운자의 가장 오래된 예로는 萬葉集의 권2 85번 노래를 들 수가 있다.

君之行 氣長成奴 山多都祢 迎加將行 待尔可將待(君が行き 日長くなりぬ 山たづね 迎へか行かむ 待ちにか待たむ)

이 가요에서 氣는 『韻鏡』內轉第九開 微韻 去聲 3등 아음 次清字로서 일수(日數) 즉 ‘날의 수’를 나타내는 ㄱ을류의 음차자로 사용되었다. 작자가 仁德天皇(313-399년)의 부인인 磐姫皇后이므로 4세기 전반의 가요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가요는 磐姫皇后의 이름을 빌려 후세에 전승된 가요이다. 특히 표기의 측면에서 보면, ヤマタヅ(造木 ミヤツコギ)의 와전된 제3구 ヤマタヅネ(山尋ね)의 ㄷ의 표기에 都가 사용되었는데 都是 遇攝 模韻 平聲 1등자로 성모가 端母이므로 全清에 속한다(都 도읍 도 <訓蒙字會 중권>, 모듈 도 <光州 千字文>, 모듈 도 <新增類合 상권>). 따라서 ㄷ가 아니라 ㄷ의 표기로 쓰여야 하는데, 탁음이 아닌 청음 ㄷ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가요가 萬葉集의 시기 구분상¹⁷⁾ 제1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제1기는

17) 시기 구분은 沢瀉久孝·森本治吉(1976)에 의한다.

672년까지로 잡고 있으므로 아직 파열음의 濁音清化(devoicing)가 일어나기 이전이어서 당연히 전청음인 都는 ツ로만 반영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요에서는 탁음 즉 유성음인 ツ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권2 90번 가요를 보면 山多豆乃(ヤマタツノ)와 같이 ツ의 표기로 유성음인 定母 ‘豆’가 사용된 것을 보면 都의 표기는 편찬자인 大伴家持(오오토모노 야카모치)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그러므로 85번 가요는 가요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은 분명하지만 표기상으로는 제4기(734-759)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氣의 표기자가 비록 ㄱ을류의 표기로 사용됨으로써 이미 日本書紀 가요 등에 보이는 ㄱ을류의 반영과는 차이를 보여 북방중고음 이전의 반영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氣는 日本書紀 가요의 몇 예만이 ㄱ을류로 사용되었을 뿐 일본 고대 자료 전반에 걸쳐 ㄱ을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즉 이미 보수성을 간직한 표기자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예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기가 분명한 일본 금석문 중 微韻字가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자.

開中費直穢人(かふちのあたひ 和歌山縣隅田八幡神社藏人物畫像鏡銘)

西宮一民(1988:29)에 의하면 443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금석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에 의한 기록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사용된 費는 微韻 去聲 3등 합구 차청자로 直과 더불어 アタヒ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즉 혼독자로 사용되었는데 음의 추정을 위해서는 음차자(音借字, 音假名)의 예가 필요하므로 다음 예를 보자.

斯歸斯麻宮治天下名阿米久余意斯波羅岐比里余波弥己等世…故遣上釋今照律師, 惠聰法師, 鏤盤師將德自味淳, 寺師丈羅未大…瓦師麻那父奴, 陽貴文, 布陵貴文…爾時使作金人等意奴弥首名辰星也, 阿沙都麻首名未沙乃也.(奈良縣元興寺露盤銘)

이 금석문은 推古天皇 4년 즉 596년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未2회, 歸1회, 貴2회가 각각 사용되었다. 未는 ㄴ을류로 백제인명과 일본인명에 각각 1회씩, 歸는 ㄱ을류로 일본지명 シキシマノミヤ에, 그리고 貴는 2예 모두 백제인명에 쓰여 ㄱ을류인지 알 수 없으나 川內國志貴評(金剛場陀羅尼經 天武天皇 14년 686년)의 예에서 보듯이 지명에 쓰인 것으로 보아 ㄱ을류임은 분명하다.¹⁹⁾ 이

18) 大伴家持는 ‘…秋都氣婆…宇都勢美母…伊呂母宇都呂比…宇都呂布見者…等騰米可祿都母(19-4160); …伊夜目都良之久…之努比都追…可多<里>都藝都流…宇都之眞子可母(19-4166); 秋都氣婆(19-4161); 可都良久麻泥爾(19-4175)’와 같이 都를 ツ(밑줄)와 ㄱ(진하게)로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 다만 이와 같이 백제인명에 未貴 등이 사용된 것으로 비추어 백제의 음운체계 내에서는 微韻字가

금석문의 일본 인명의 未와 일본 지명의 歸의 음차자가 微운자의 가장 오래된 예인데 두 자 모두 개구음이 아니라 합구음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지면 관계상 다음 논문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면 고대 일본 자료에 나타난 微운자의 사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검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推古遺文·白鳳遺文·奈良遺文·平安遺文
古事記·日本書紀歌謠·日本書紀訓注·万葉集·歌經標式

이상의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구음	希	氣	既	幾	機
推古遺文	음차자	kë3(인명)	kë3(인명2)			
	훈독·훈차자					
白鳳遺文	음차자					
	훈독·훈차자					
奈良遺文	음차자		kë1			
	훈독·훈차자					
古事記	음차자		kë27			
	훈독·훈차자					
日本書紀歌謠	음차자		kî2·kë4		kî1	kî1
	훈독·훈차자					
日本書紀訓注	음차자		kë4	kî1		
	훈독·훈차자	1	1			
万葉集	음차자		kë250·gë82	kë5·gë2		
	훈독·훈차자	7	26	1	45	4
歌經標式	음차자		13(kë7·gë5·ke1)			
	훈독·훈차자					
平安遺文	음차자		kë1			
	훈독·훈차자					

상당히 보편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며, 이와 같은 표기법의 영향이 고대 일본어의 ㅅ을류의 표기에 이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0) 小倉肇(오구라 하지메 1970)는 이와 같이 微운 합구자가 ㅅ을류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여 고대일본어의 ㅅ을류를 6-7세기에는 [jii](=[ɰi])로 추정하였으며, 차차 합구성의 약화로 인하여 8세기에는 [ji](=[ɰi])로 변하였다고 보았다. 한반도계의 귀화인들에 의한 표기법의 전수는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표기법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 금석문의 위와 같은 표기법은 순수하게 일본인에 의한 일본 음운 체계 내에서의 표기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小倉肇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개구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음인 氣既와 후음인 希는 케을류로 아음의 幾機는 키을류로 나타나는데 케을류의 반영은 중고음 이전의 반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日本書紀 가요나 훈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키을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日本書紀歌謠:居氣辭被惠爾 こきしひゑね/伊智佐介幾 いちさかき/多伽機珥 たかきに/居氣儂被惠禰 こきだひゑね(3번)

日本書紀訓注:齊忌<此云>踰既 ゆき(卷二十九 天武紀下)

물론 위의 예는 α군이 아니라 β군에만 보이기 때문에 森博達의 α군 당대 북방음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β군에 속한다고 해서 β군의 표기가 당대 북방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전승음과 당대 북방음이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키을류로 쓰인 것은 중고음과 당대 북방음이 적어도 微운에서는 음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²¹⁾.

한편 日本書紀의 한국관계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加羅國王妹既殿至(ケデンチ・キデンチ),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권9 神功紀)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既殿奚(コデンケイ・キデンケイ)及竹汶至等, 奉宣恩勅.(권17 繼體紀)

여기에 쓰인 既가 주석본에 따라서는 케을류·키을류·코을류 등으로 제 각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합구음	非	肥	飛	微	尾	費	未	味	斐	妃	婦	貴
推古遺文	음차자	φi2(인명1)						m i 1 (백제인명)				ki7 지명	ki5(지명2·인명1, 백제인명2)

21) 다만 키을류의 표기에 사용된 微운자는 来目歌로 잘 알려진 것으로 神武천황이 지은 가요인데 전문을 제시하면, ‘于儂能 多伽機珥 辭藝和奈破蘆 和餓末菟夜 辭藝破佐夜羅孺 伊殊區波辭 區旆羅佐夜離 固奈瀾餓 那居波佐麼 多智曾麼能 未酒那鷄句塢 居氣辭被惠爾 于破奈利餓 那居波佐磨 伊智佐介幾 未酒於朋鷄句塢 居氣儂被惠禰’와 같다. α군 가요의 표기자로 쓰일 것으로 예측되는 微운 개구 아음자인 氣既幾機가 왜 β군 가요인 이 가요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훈독. 음차 자			飛鳥1		尾治6	1(姓氏 あ た ひ)						
白鳳遺文	음차 자					m i 1 (인명)							
	훈독. 음차 자			飛鳥5			1(姓氏 あ た ひ)						
奈良遺文	음차 자					m i 3							
	훈독. 음차 자			飛鳥1									
古事記	음차 자		φi3			m i 15			m i 1	φ i 1 0 (生 ひ 7)			k i 1 神 名
	훈독. 음차 자						を1						
日本書紀歌謠	음차 자					m i 4(α 군3)	φ i 1(φo 로 도 봄)		m i 6				
	훈독. 음차 자												
日本書紀訓注	음차 자					m i 2			m i 2			φ i 1	
	훈독. 음차 자								2				4
万葉集	음차 자	φ i 8 0 · b i 1	φ i 4(노 래1회)	φ i 5 · b i 2	m i 1	m i 12		m i 96	m i 6	φ i 1 1			20(지 명·인 명)
	훈독. 음차 자	2	3(1회 異說)	37	1	70		60	30			19	22
歌經標式	음차 자	φ i 2							m i 3				
	훈독. 음차 자												
平安遺文	음차 자												
	훈독. 음차 자												

합음의 경우, 아음자인 歸貴가 키을류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특징이 있다. 음차자로써 일반 어휘의 표기에 사용된 예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歸는 지명 シキシマ(ノミヤ·天皇<欽明天皇>)의 표기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萬葉集에서조차 음차자의 사용이 없이 오로지 훈독표기로 19예가

12-3132·13-3291(2회)·19-4226

かへる : 5-894·5-895·9-1740·19-4145(2회)

와 같이 동사 ヌク와 カヘル에 사용되었다.

貴 또한 推古遺文에서는 지명 2회와 인명 3회(백제 인명 2회 포함)가 보이고 古事記에서는 神名 1회, 그리고 万葉集에서는 志貴皇子(シキノミコ 天智천황의 아들 12회)·安貴王(アキノオホキミ 6회)·内侍佐佐貴山君(ササキノヤマノキミ 1회)와 같이 인명으로 19회 그리고 지명으로 志貴嶋(シキシマ)와 같이 1회가 쓰였는데 일반 어휘로 쓰인 예가 없다. 일반 어휘의 경우 万葉集에서 훈독자로 22회 보이는데 형용사 タフトシ(19회)·형용사 어간 タフト(6-1050 1회)·동사 タフトブ(5-904 1회)·동사 タフトム(18-4094 1회)와 같다.

합구 순음의 경우, 히을류·비을류·미을류로만 즉 へ·べ·め을류의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중고음 이전의 예가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微운의 중고 재구음

본 장에서는 2.2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재구음들을 3장과 4장에 나타난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微운의 중고음을 추정하기로 한다. 또한 나가는 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먼저 기존 재구음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Karlgren으로 그만이 핵모음을 [ɛ](필자의 표기에 의하면 [e]로 나타낼 수 있다)로 추정하였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핵모음을 [ə]로 추정하였다. 운미음은 모두 [i]로 재구하였고, 개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Karlgren을 비롯하여 王力, 董同龢, 严学窘은 [j] 즉 [i]로 추정하였고, 陸志韋와 藤堂明保는 [ɪ]로 재구하였는데 음성기호는 같지만 나타내는 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전자의 [ɪ]는 [i]와 [ə]의 중간음을 나타내며²²⁾, 후자는 전설의 [i]와 중설의 [ü](필자는 [ɥ]로 표기) 사이의 음을 나타낸다.(藤堂明保 1997:1572) 세 번째는 河野六郎로 그는 有坂秀世가 추정한 [i]=[bɪ] 필자는 [ɸɪ]로 표기)음을 그대로 따랐다. 개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微운과 같이 중뉴운에 속한 운의 경우 개음을 3·4등 단운과 동일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음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중국 중고음은 물론이고 이를 차용

22) 上文假擬作ɪ, 反正比來得寬而靠後。作ɪ只是爲便利起見, 也許是i跟ə中間的音, 也許更弘更後。下文凡是遇到r號都得這樣了解他。(陸志韋 1985:24)

한 주변 여러 나라의 한자음 자료 해석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²³⁾.

필자는 微운의 중고음을 [ɿi]와 [ɿui]로 추정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승 한자음에 의한다. 한국 전승 한자음은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구음은 모든 성모에 걸쳐서 /의/로 나타나고 합구음은 아음과 후음이 /위/로 그리고 순음은 /이/로 반영되었는데, 개구음이든 합구음이든 /이/의 반영은 핵모음과 운미음이 같은 [i]이므로 해서 /이/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재구음 [ɿi]와 [ɿui]를 보면 개음이 각각 [ɿ]와 [ɿu]인데 반해, 나머지 [i]는 핵모음인지 운미음인지 알 수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현대 중국어에서 卡kǎ[kɑ:]·妈mā[mɑ:]·及jí[tɕi:]·不bù[bu:]·起qǐ[tɕhi:] 와 같이 단모음을 지닌 음은 그 음의 길이가 家jiā[tɕia]·国guó[kuo]와 같이 개음과 핵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美měi[mei]·更gēng[kəŋ]과 같이 핵모음과 운미음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票piào[pʰiaʊ]·强qiáng[tɕhiaŋ]과 같이 개음, 핵모음 그리고 운미음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성모를 제외한 운모 부분의 음 길이는 단모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等時間的)는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의 재구음은 엄밀하게 표기하면 [ɿii] 또는 [ɿii:]로 표기가 가능하다. 다만 필자는 微운의 변화를 중고음 시기 이전에는 [ɿ^oi] 또는 [ɿ^oi:]와 같이 추정하기 때문에 핵모음 [^o] 또는 [^o]의 약화가 진행되어 결국 탈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음 [ɿ]와 운미음[i] 사이에서 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운미음이 핵모음까지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의 음은 [ɿi:]와 같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i]는 핵모음과 운미음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단지 다른 재구음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ɿi:]가 아니라 [ɿi]로 표기한 것이다.

개구개음 [ɿ]가 /으/(=[ɰ~ɻ])로 반영된 사실은 /이/(=[i])와 [ɿ]는 전설과 중설의 차이가 있었음을 당시에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설에는 /우/·/으/·/어/가 존재하는데 /우/([ɰ])는 원순모음인 관계로 [ɿ]와 차이가 크고, /어/([ɻ])는 대부분 중모음이나 저모음인 [ə]나 [ɜ]음의 전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ɿ]와는 음의 차이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으/ 뿐인데 /으/가 선택된 것은 최선의 표기가 아니라 차선의 표기로 보인다. 그 이유는 /으/가 중설로써 고모음이면서 비원순 모음이라는 공통된 특질을 지닌 [ɿ]와 비록 음색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ɿ]가 [i]와는 다르다는 인식에 의해 부득이 음색의 차이를 무시하고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 점은 止攝에서 3·4등 단운인 之운을 제외한 支脂微운이 3·4등 중뉴운

23) 개음에 대해서는 김·데손(2003:83-93) 참고

이거나 순3등운이라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 3·4등 단운의 之운은 개음 [ɨ]가 핵모음에 흡수되면서 핵모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데 반해, 즉 겹으로는 [ɨ]가 명백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支脂微운은 [ɨ]가 핵모음에 흡수되지 않고 명백하게 /으/라는 표기로 나타난 것은 3등 중뉴운과 순3등운이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다.

둘째, 萬葉仮名の 반영례에 의한다. 이 근거는 한국 전승 한자음이나 제2차 자료보다도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대 일본어의 ㅅ을류의 음가(sound value)가 微운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ㅅ을류의 음가를 [ɨ ɨ̃](단, [ɨ̃]설도 배제하지 않는다)로 추정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²⁴⁾.

첫 번째는 ㅅ을류로 사용된 萬葉仮名가 속한 운은 모두 止섭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ㅅ을류가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왜냐하면 만일 ㅅ을류가 단모음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운미음이 없거나 양성 운미음 또는 입성 운미음을 가진 운의 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二合仮名(니고우가나)가 ㅅ을류(으을류도 마찬가지이다)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ア·イ갑류·ウ·エ갑류·オ갑류·オ을류는 모두 二合仮名の 예를 볼 수가 있지만 으을류와 함께 ㅅ을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ㅅ을류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음성 운미음을 지닌 운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蟹섭자가 ㅅ을류 표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止섭과 마찬가지로 蟹섭도 운미음이 [i]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순3등운이나 3등 중뉴운의 경우 을류로 사용되는데 廢 순3등운과 祭 3등 중뉴운이 ㅅ을류로 사용되지 못한 것은 蟹섭운의 핵모음이 전설모음이거나 저모음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ㅅ을류 사용자의 특징은 중설인 [ɐ][ə][ɜ][ɛ]와 전설의 강한 핵모음인 [ɛ][æ]를 지닌 운이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ㅅ을류를 [ɨ ɨ̃]로 추정하였는데, 순3등운이므로 개음이 [ɨ̃]이고 한국 전승 한자음의 /이/의 반영에 의해 핵모음과 운미음이 [i]로 추정된다. 그리고 萬葉仮名에 의해 ㅅ을류가 [ɨ ɨ̃]로 추정되는데 중고 채구음 [ɨ̃]와 [ɨ̃ui] 중에서 微운자는 개구음은 日本書紀 가요와 훈주에서만 氣 2회, 幾 1회, 機 1회와 같이 극히 소수의 예만이 존재하고, 비록 인명과 지명 등에 집

24) 김대성(2003b:119-123) 참고

중되기는 하지만 합구음이 주로 사용된 점, 다음 연구에서 다루겠지만 ㄱ와 ㆁ의 율류 표기에는 주로 之운자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중고음에서는 [i]음을 지닌 운은 止섭과 蟹섭인데 후자는 핵모음이 전설모음 이거나 중설 저모음 또는 후설 저모음이므로 ㄱ율류의 중설 고모음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제되어 止섭운만이 사용될 수 있었다. 문제는 ㄱ율류의 주모음은 [ɨ]인데 止섭운의 운미음은 [i]이므로 차이가 있어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선택되었고, 그 차이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개구개음 [ɨ] 보다는 합구개음 [ɨu]를 선택함으로써 주모음 [ɨ]의 차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ㄱ율류가 [ɨ]가 아니라 [ɨi]이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ㄱ율류가 전자이었다고 한다면 ㄱ율류의 표기로 微운자가 가장 적합했을 것이므로 止섭의 支脂之운 3등자가 거의 사용되지 못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세 가지 운의 예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고대 일본어의 ㄱ율류는 후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베트남과 티베트 한자음을 간접적인 근거로 들 수 있다

베트남 한자음의 [i]와 [ui]의 반영은 적어도 중고음에서 [i]음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개구개음 [ɨ]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에서 u[ɯ:]는 존재하는데 중설이 아니고 후설 모음이고, 더군다나 u/a/uɔ[ɯə]와 같은 이중모음은 있으나 u[ui]와 같은 이중모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일 핵모음이 [i] 이외의 음이었다면 약 11개의 단모음²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음으로든 반영된 예가 상당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i]이었을 가능성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티베트 한자음의 경우 개구음이 i[ɨ]로 반영된 것을 보면 개구음은 베트남 한자음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합구음의 경우 아음과 후음이 千字文은 u'i[ui], 千字文 이외는 u[u]로 반영되었는데 3.2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고음의 반영은 전자의 자료로 보아야 한다. 후자는 아마도 강한 합구성을 지닌 합구개음에 의해 [i]가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기로 한다. 순음의 경우 네 가지 자료 모두 yi[ji]로 반영되었는데 순음의 순음성에 의해 합구개음이 흡수되었다. 그런데 3등 개구개음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등개음이 만일 [ɨ]이었다면 핵모음 [i]에 흡수되기 때문에 [i]로 반영되었거나, 같은 순3등운인 支脂운과 같이 핵모음이 약한 경우²⁶⁾에는 개구개음 [ɨ]와 핵모음이 강한 운미음 [i]에 의

25) a[ɑ:] ǎ[a] â[ə] e[ɛ:] ê[e:] i/y[i:] o[ɔ:] ô[o:] ɔ[ə:] u[u:] ɯ[ɯ:]

해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微운은 개구개음 [ㄱ]와 핵모음과 운미음이 [i]이기 때문에 즉 핵모음과 운미음이 같기 때문에 개구개음을 인식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개구개음의 차이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비록 순음이기는 해도 합구개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구개음과 합구개음이 합쳐진 어떤 음을 [j]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j]는 합구개음과는 무관하다. 그 이유는 티베트 한자음의 경우도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또는 태국 한자음 등과 같이 순음의 경우 합구개음은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灰운 합구음의 경우에도 ‘杯pa'i 陪ba'i 背ba'i'(羅常培 1933:47)'와 같이 합구개음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j]의 반영은 개구개음 [ㄱ]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현대 중국 방언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개구음의 경우 3등개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합구음의 경우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필자가 보기에 유일하게 闽語의 建甌에 보이는 ‘肥py 归ky 尾myε 謂y’의 [y]는 핵모음과 운미음이 아니라 개구개음과 합구개음의 반영으로 추정된다. 微운은 개구음에서는 개구개음과 핵모음 그리고 운미음이 모두 [i]로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합구음에서는 합구개음은 [u]로 핵모음과 운미음은 같아서 [i]로 즉 [ui]로 나타나거나, 중고음 이전의 어떤 음이 官話를 비롯하여 여러 방언에서 핵모음이 되살아나거나 혹은 잔존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微운이 止접자의 支脂之운으로 합류한 것이 아니라, 支脂之운이 微운으로 합류되었다는 점을 필자는 분명히 지적해두고 앞으로의 논문에서 그 점을 다루기로 한다.

【参考文献】

- 김대성(2003a) 「상대 일본어 이(イ) 음류의 소릿값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45. 한국일어일문학회. pp.219-235
- 김대성(2003b) 『고대 일본어의 음운에 대하여』, 제이앤씨. pp.119-123
- 김대성(2003c) 「상대 일본어의 모음체계 연구: 음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11-2. 대한언어학회. pp.157-183

- 김무림(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한국 어학회. pp.89-132
- 김용옥(1992)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pp.349-361
- 동양학연구소(1992) 『신증유합』, 단국대학교출판부.
- 동양학연구소(1995) 『천자문』, 단국대학교출판부.
- 동양학연구소(1995) 『훈몽자회』, 단국대학교출판부.
- 박병채(1986) 『고대국어의 연구 -음운편-』, 고려대학교출판부. pp.182-193
- 이돈주(1990) 「향가 용자 중의 ‘賜’자에 대하여」, 국어학 20. 국어학회. pp.72-89
- 최미현(2006) 「『전운옥편(全韻玉篇)』에 반영된 지섭(止攝)의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pp.213-231
- 최영애(1985) 『고대한어음운학개요』, 민음사.
- 秋谷裕幸(1993) 「客家語における微韻唇音字」, 中国語学 240. 日本中国語学会, pp.11-20
- 浦上準之助(1993) 「奈良朝日本語のオ列甲類乙類音節について - 奄美大島方言祖語に見る痕跡 - 」, 聖徳学園岐阜教育大学紀要 26. pp.143-161
- 岡本勲(1969) 「日本漢字音に於ける止攝の所謂長音表記に就て--韻鏡の開合·開·合の分類基準との関連に於て」, 国語国文 38-8. 中央図書出版社. pp.1-19
- 沖森卓也外(1993) 『歌経標式·注釈と研究』, 桜楓社.
- 小倉肇(1970) 「上代イ列母音の音的性格について」, 国学院雑誌. 国学院大学出版部. pp.263-274
- 沢瀉久孝·森本治吉(1976) 『作者類別年代順万葉集』, 芸林舎.
- 加倉井正(1981) 「上代特殊仮名遣における甲類·乙類仮名について」, 現代科学論叢 15. 現代科学研究会, pp.1-17
- キム·데ソン(2000) 「中古漢字音の再構成 - 韓日資料による韻母音を中心に - 」, 福岡大学博士学位論文.
- 金大星(2003) 「上代日本語の「エ乙類」の音価推定」,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 6.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学会. pp.305-317
- 河野六郎(1993) 『河野六郎著作集 第2巻』, 平凡社. pp.103-145
- 小島憲之外(1994-1996) 『万葉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小島憲之外(1994-1998) 『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佐々木勇(2004) 「日本漢音における止撮合口字音の受容に見られる位相差」, 国語国文 73-7. 中央図書出版. pp.21-37
- 佐藤清(1987) 「琉球古文獻におけるイ列乙類音対応音の表記について」, 沖縄文化研究 13. 法政大学. pp.333-371
- 柴田武(1980) 「奄美大島諸方言におけるオ列甲類と乙類の区別 (奄美-5-)」, 人類科学 33. 九学会連合. pp.41-59
- 上代文献を読む会(1989) 『古京遺文注釈』, 桜楓社.

- ・高木市之助外(1957-1962) 『万葉集(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 ・鶴久・森山隆(1995) 『万葉集』、おうふう.
- ・藤堂明保(1980) 『中国語音韻論』、光生館. pp.264-265
- ・藤堂明保(1997)、『学研漢和大事典』、学習研究社.
- ・西宮一民(1988) 『日本上代の文章と表記』、風間書房. p.29
- ・荻原麻男外(1976) 『古事記・上代歌謡(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 ・東ヶ崎祐一(1993)「万葉仮名「閔・米」について - 中古漢字音の音変遷に関連して -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 3. pp.61-70
- ・福永静哉(1956)「先行音節の母音よりするイ列乙類の性格」、女子大國文 4. 京都女子大学国文学会.
- ・藤井游惟(2001)「上代特殊仮名遣いと朝鮮帰化人 - オ段甲乙音を中心に調音音声学と朝鮮語音韻論からみた万葉仮名 - 」、国語学 52-3. 日本語学会. pp.91-92
- ・真武直(1960)「中古漢語音韻の源流と上代特殊仮名甲乙類別の背景」、支那学研究24/25. 広島支那学会.
- ・三根谷徹(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汲古書院. pp.455-456
-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大修館書店.
- ・森山隆(1959)「上代におけるエ列乙類の性格」、語文研究 8.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pp.21-29
- ・山口角鷹(1958)「止摂字和音考」、東京学芸大学研究報告 9. 東京学芸大学.
- ・Bernhard Karlgren(1963)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pp.263-266
- ・E.G.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Geoffrey K. Pullum・William A. Ladusaw(1996) 『Phonetic Symbol Guid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北京大学中国语言文学系语言学教研室編(1989) 『汉语方音字汇』, 文字改革出版社.
- ・董同龢(1993)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pp.166-168
- ・陸志韋(1985) 『陸志韋語言學著作集(一)』, 中華書局. pp.11-12, 24, 44-48
-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pp.43-44, 47
- ・王力(1985) 『汉语语音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226-227
- ・严学窘(1990) 『广韵导读』, 巴蜀书社. pp.73-74
- ・余迺永校註(1993) 『新校互註宋本廣韻』, 中文大學出版社.

要 旨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y reconstruction *Wei* rhyme(微韻) [ɿ] and [ɿui] in *Zhi* rhyme group(止攝), using the literature on Sino-Korean, *Manyō Kana* or Japanese phonetic alphabet, Modern Chinese dialects, Sino-Vietnamese and Sino-Tibetan.

The main grounds are as follows:

First, in *kaikou* final all the initials in *Wei* rhyme are /의/ in Sino-Korean, whereas in *hekou* final velars and laryngeals are /위/, bilabials /ㅇ/. The fact that *kaikou* and *hekou* final both have /ㅇ/([i]) represents the vowel and ending of *Wei* rhyme in Ancient Chinese is [i].

Second, the sound value of the other i or ì in Old Japanese has similar sound quality to *Wei* rhyme, the former [ɿ] (or [ɿi]), the latter [ɿ] and [ɿui]. The reason that *Manyō Kanas* in *kaikou* final were made few use of seems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medial of the third division for which ones in *hekou* final were substituted.

Third, Sino-Vietnamese has [i] and [ui], which have the same sound value to Sino-Korean.

Finally, bilabials in Sino-Tibetan were reflected as yi[ji]. It appears that being based on y[j] the medial was not [ɿ], but [ɿ].

キーワード : 止攝(*Zhi* rhyme group) 微韻(*Wei* rhyme) 중고음(Ancient Chinese) 재구(reconstruction) 한국 전승 한자음(Sino-Korean) 萬葉假名(*Manyō Kana* or Japanese phonetic alphabet) 베트남 한자음(Sino-Vietnamese) 티베트 한자음(Sino-Tibetan) 현대 중국 방언음(Modern Chinese dialects) 개음(medial)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